

2017. 04. 10. ~ 2017. 04. 16.

주간

132  
VOL

# 전남농업정보

## 기상전망

##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무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분기 농식품 수출 전년보다 11.2% 증가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2017년산 벼 종자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 못자리 1회 관주처리기술 개발로 병해충 『한방에』

## 정책동향

- 농가의 온라인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DB 구축
- 농지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올해가 가입적기

## 사업신청 및 홍보

- 2017년 벼 · 콩 보급종 추가로 신청하세요
- 쌀발조건불리 직불금 27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목차 및 요약

### 1. 주간 기상전망 ..... 5

- ▶ 20일 오전과 25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2도, 최고기온: 18~22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많겠음

###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8

- ▶ 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 무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0

- ▶ 1분기 농식품 수출 전년보다 11.2% 증가
- ▶ 완도군, 완도 농수산물 1,00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14

- ▶ 유기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온실가스(메탄) 저감효과
- ▶ 전남지역 발작물 잡초 발생현황 및 관리기술
- ▶ 벼 조기재배 시 늦이삭 수량성 및 제어 방법
- ▶ 차 생잎을 첨가한 소스 제조 방법
- ▶ 2017년산 벼 종자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 ▶ 조운벼, 6월 5일까지 모내기하세요
- ▶ 못자리 1회 관주처리기술 개발로 병해충 『한방에』
- ▶ 쌀국수용 벼는 일반벼보다 이앙시기가 빨라요
- ▶ 시설하우스 토마토 재배 시 해충 예찰 꼼꼼히 하세요
- ▶ 사과 꽃, 빠르면 17일부터 필 듯... 지난해보다 당겨져
-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지금이 방제적기
- ▶ 인삼 뿌리썩음병 억제하는 녹비작물 찾았다

## 6. 정책 동향 ..... 28

- ▶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농협전남지역본부 손잡아
- ▶ 농가의 온라인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DB 구축
- ▶ 농지연금, 가입전수 역대 최고 올해가 가입적기
- ▶ 농촌 생명 지킴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대
- ▶ 함평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갖춰 12일 재개장

##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34

- ▶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5월 개장한다
- ▶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비상근무 착수
- ▶ 광양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나선다
- ▶ 담양군,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추진
- ▶ 곡성군, 곡성멜론 장미향 나는 5월부터 선 보인다
- ▶ 고흥군, 친환경농업 실현 위해 연중 무료 토양검정실시
- ▶ 보성군, 차별화된 지역소득 작물 선정 집중육성
- ▶ 해남군, 소득작목으로 잎담배 적극 육성

## 8. 해외 농업정보 ..... 42

▶ 독일, 식품 유통시장 동향

▶ 페루, 엘니뇨현상으로 농산물 수출 타격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4.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비가 예보되면서 단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5% 상승 마감하였음.  
대두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불확실한 기후도 가격 상승에 지지를 더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2주 이래 최고수준으로 상승 마감하였음. 최근 불확실한 수확 기후가 가격 상승에 지지를 더하였음. 대두박 또한 중국 대두박 선물 시장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대두유는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7

▶ 2017년 벼·콩 보급종 추가로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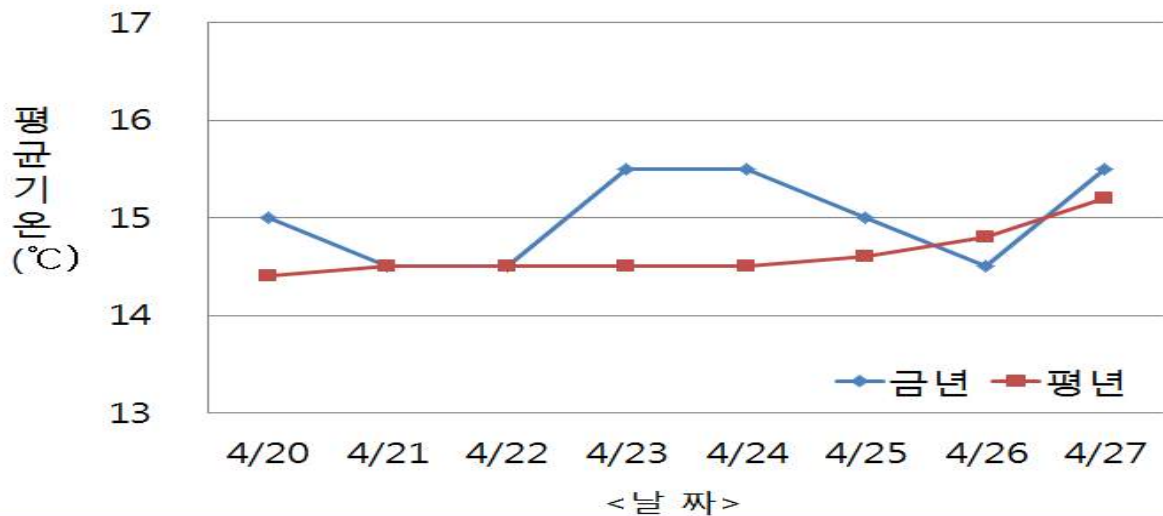
▶ 쌀발조건불리 직불금 27일까지 신청하세요

▶ 봄비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4월 20일 ~ 4월 27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5.0℃ (평년대비 0.4℃ 높음)
- 최고기온 : 20.6℃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9.4℃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2.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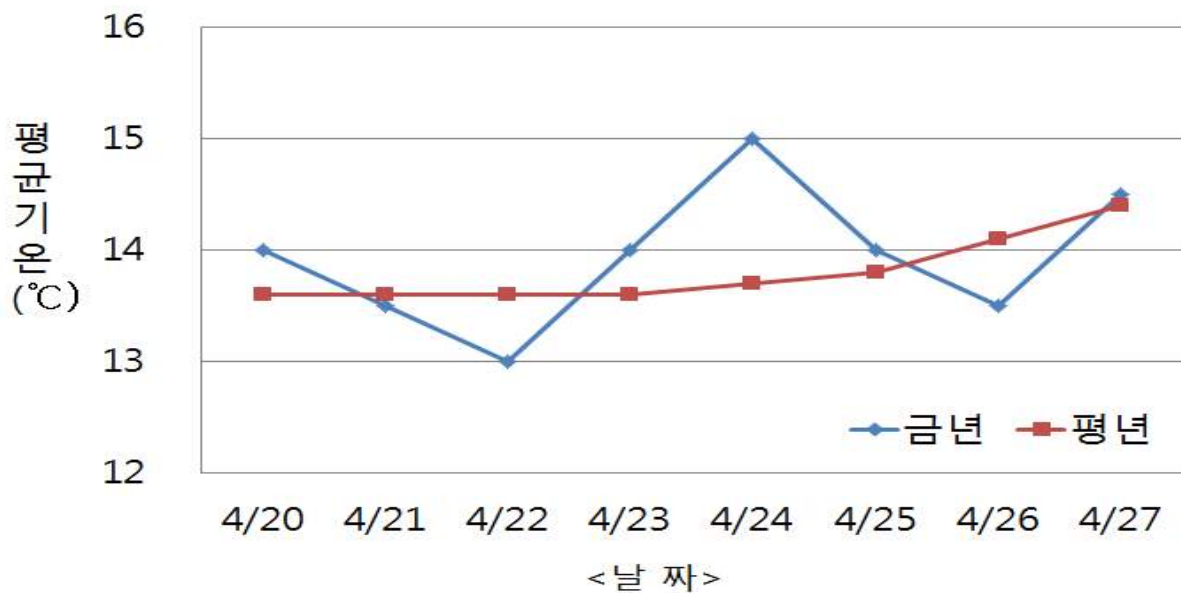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0	14.6	0.4	20.6	21.2	-0.5	9.4	8.9	0.5	2.7
4. 20.(목)	15.0	14.4	0.6	19.0	20.8	-1.8	11.0	8.9	2.1	4.1
4. 21.(금)	14.5	14.5	0.0	20.0	20.9	-0.9	9.0	8.9	0.1	3.1
4. 22.(토)	14.5	14.5	0.0	21.0	20.9	0.1	8.0	8.9	-0.9	2.7
4. 23.(일)	15.5	14.5	1.0	21.0	21.0	0.0	10.0	8.9	1.1	2.6
4. 24.(월)	15.5	14.5	1.0	22.0	21.0	1.0	9.0	8.8	0.2	2.5
4. 25.(화)	15.0	14.6	0.4	20.0	21.3	-1.3	10.0	8.7	1.3	1.8
4. 26.(수)	14.5	14.8	-0.3	20.0	21.5	-1.5	9.0	8.9	0.1	1.9
4. 27.(목)	15.5	15.2	0.3	22.0	21.8	0.2	9.0	9.4	-0.4	2.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4월 20일~4월 27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3.9℃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18.1℃ (평년대비 1.1℃ 낮음)
- 최저기온 : 9.8℃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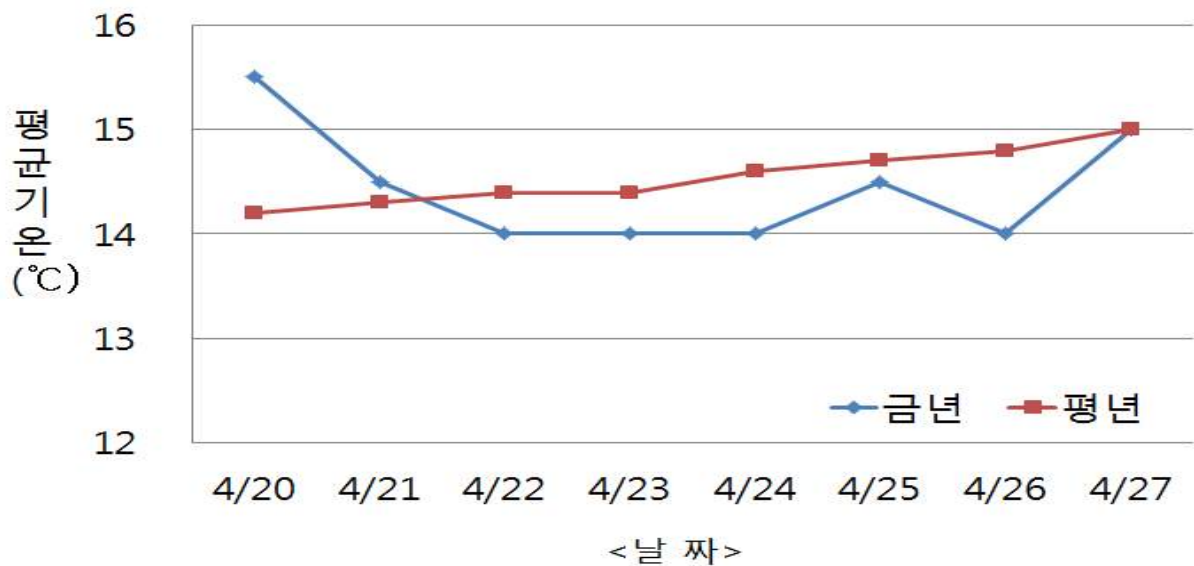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9	13.8	0.7	18.1	19.2	-1.1	9.8	9.5	0.2	2.3
4. 20.(목)	14.0	13.6	5.0	17.0	19.0	-2.0	11.0	9.4	1.6	3.3
4. 21.(금)	13.5	13.6	-0.1	18.0	18.9	-0.9	9.0	9.4	-0.4	2.7
4. 22.(토)	13.0	13.6	-0.6	18.0	19.0	-1.0	8.0	9.4	-1.4	2.3
4. 23.(일)	14.0	13.6	0.4	19.0	19.1	-0.1	9.0	9.5	-0.5	2.2
4. 24.(월)	15.0	13.7	1.3	20.0	19.1	0.9	10.0	9.4	0.6	2.2
4. 25.(화)	14.0	13.8	0.2	17.0	19.3	-2.3	11.0	9.4	1.6	1.7
4. 26.(수)	13.5	14.1	-0.6	17.0	19.5	-2.5	10.0	9.7	0.3	1.7
4. 27.(목)	14.5	14.4	0.1	19.0	19.8	-0.8	10.0	10.1	-0.1	2.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4월 20일~4월 27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14.4℃ (평년대비 0.1℃ 낮음)
- 최고기온 : 18.4℃ (평년대비 0.3℃ 낮음)
- 최저기온 : 10.5℃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3.6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4	14.6	-0.1	18.4	18.7	-0.3	10.5	11.0	-0.5	3.6
4. 20.(목)	15.5	14.2	1.3	18.0	18.2	-0.2	13.0	10.8	2.2	5.3
4. 21.(금)	14.5	14.3	0.2	19.0	18.4	0.6	10.0	10.9	-0.9	4.5
4. 22.(토)	14.0	14.4	-0.4	19.0	18.5	0.5	9.0	10.9	-1.9	4.2
4. 23.(일)	14.0	14.4	-0.4	18.0	18.6	-0.6	10.0	10.9	-0.9	3.3
4. 24.(월)	14.0	14.6	-0.6	18.0	18.8	-0.8	10.0	11.0	-1.0	2.7
4. 25.(화)	14.5	14.7	-0.2	18.0	19.0	-1.0	11.0	11.0	0.0	2.6
4. 26.(수)	14.0	14.8	-0.8	18.0	19.0	-1.0	10.0	11.1	-1.1	2.8
4. 27.(목)	15.0	15.0	0.0	19.0	19.1	-0.1	11.0	11.5	-0.5	3.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 생산동향 : 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많을 전망

-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27, 16%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주산지인 문경·의령·아산 등의 면적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대비 각각 14,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출하전망 : 4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4월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은 저장량이 늘면서 작년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시설봄배추 출하량은 주산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가격전망 : 4월 가격 전월 및 전년대비 낮아

-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10kg당 6,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4월 순별 가격은 저장에서 시설봄으로 작형이 전환되는 시기에 하락세가 전망된다.
- 5월 가격은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낮고, 4월 대비 하락세가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무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전망

### □ 생산동향 :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15% 증가한 158ha로 추정된다.
- 시설봄무 생산량은 약 1만 3천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하나, 평년보다 13% 감소한 973ha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작년보다 10%, 충청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출하전망 : 4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5월은 감소

- 4월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감소하나, 재파종 된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산지 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7%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출하량은 시설봄무 출하량이 증가하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1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 가격전망 : 4월 가격 전월대비 보험세 전망

- 4월 도매가격은 작년(17,585원)보다 낮으며 전월대비 보험세인 18kg당 15,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4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으며, 저품위 출하비중이 늘어나 품위간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1분기 농식품 수출 전년보다 11.2% 증가

- 일본 등 21억 2,400만달러 성과, 사드 보복에 대중수출 감소세 -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3월까지의 우리 농식품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한 21억 2,400만달러를 기록했다.
-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3억 900만달러(17.2% ↑), 아세안 2억 9,700만달러(12.8% ↑), 중국 2억 4,300만달러(7.4% ↑), 미국 1억 7,300만달러 (4.5% ↑)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실적이 늘어났다.
- 다만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촉발된 사드 보복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농식품 3월 당월 중국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5.6% 감소했고,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은 당분간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수출 품목 측면에서는 신선이 4.8% 증가한 2억 5,500만달러, 가공식품 12.6% 증가한 13억 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 신선의 경우, 인삼 (3,800만달러, 20.5% ↑)과, 곡류 (1,700만달러, 125.5% ↑)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 그러나 과실류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자차(24.5% ↓)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한 6,100만달러를 기록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커피조제품 6,700만달러(10.9% ↑), 라면 9,400만달러(65.4% ↑)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선전이 꾸준히 이어졌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 완도군, 완도 농수산물 1,00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 SHO International 판매망 통해 미국 서부지역에 공급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 16일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미국 SHO International(대표 이덕), (사)완도식품수출협회(회장 문기경)와 완도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와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수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SHO International은 미국 서부지역에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주류와 식품을 대형마트와 음식점에 공급하는 회사다.
- 완도군과는 2016년 LA현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Sea Food 대전과 LA한인축제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 군은 2016년 SHO International LA현지 본사 및 물류창고 확인 등 현지 실사를 통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에는 1억 7천만 상당의 1차 수출을 진행했다.
- SHO International이 구축해온 미국 현지 유통망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완도 농수산물 판로망 확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이번 1,000만달러 (한화 113억원) 수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이덕 대표는 “완도의 품질 좋은 제품은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수출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완도 제품의 홍보와 판로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출처 : 완도군

##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4. 1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17)	1주일전 (04/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100	↓ 12.2	↓ 24.5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60,967	↑ 14.7	↑ 6.9
	고구마(밤)	10kg	26,000	26,000	26,000	29,200	26,053	↓ 11.0	↓ 0.2
	감자(수미)	20kg	33,200	33,600	35,320	31,600	31,000	↑ 5.1	↑ 7.1
채소류	배추(월동)	1kg	720	800	946	1,505	973	↓ 52.2	↓ 26.0
	양배추	10kg	5,000	6,200	10,880	10,100	6,680	↓ 50.5	↓ 25.1
	오이(다다기계통)	10kg	14,667	16,667	23,533	22,250	23,337	↓ 34.1	↓ 37.2
	애호박	8kg	12,800	13,800	16,800	14,300	16,120	↓ 10.5	↓ 20.6
	건고추(화건)	60kg	560,000	570,000	570,000	733,500	808,500	↓ 23.7	↓ 30.7
	풋고추	10kg	56,000	45,000	46,800	42,200	45,697	↓ 32.7	↑ 22.5
	마늘(깐마늘)	20kg	139,000	142,000	142,080	169,000	123,693	↓ 17.8	↑ 12.4
	양파	20kg	25,200	26,400	27,480	31,500	19,620	↓ 20.0	↑ 28.4
	당근	20kg	46,400	42,200	38,480	27,700	25,900	↑ 67.5	↑ 79.2
	대파	1kg	2,140	2,440	2,776	2,430	1,733	↓ 11.9	↑ 23.5
	파프리카	5kg	21,000	22,400	24,800	28,200	28,080	↓ 25.5	↓ 25.2
	딸기	1kg	5,900	5,900	7,180	7,900	7,733	↓ 25.3	↓ 23.7
	토마토	10kg	24,200	28,800	30,560	30,750	33,560	↓ 21.3	↓ 27.9
	방울토마토	5kg	20,800	23,200	20,640	24,400	23,940	↓ 14.8	↓ 13.1
	수박	1개	16,200	16,200	17,840	16,800	15,910	↓ 3.6	↑ 1.8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8,400	38,600	38,400	37,000	48,289	↑ 3.8	↓ 20.5
	배(신고)	15kg	42,000	42,000	41,080	44,000	44,267	↓ 4.5	↓ 5.1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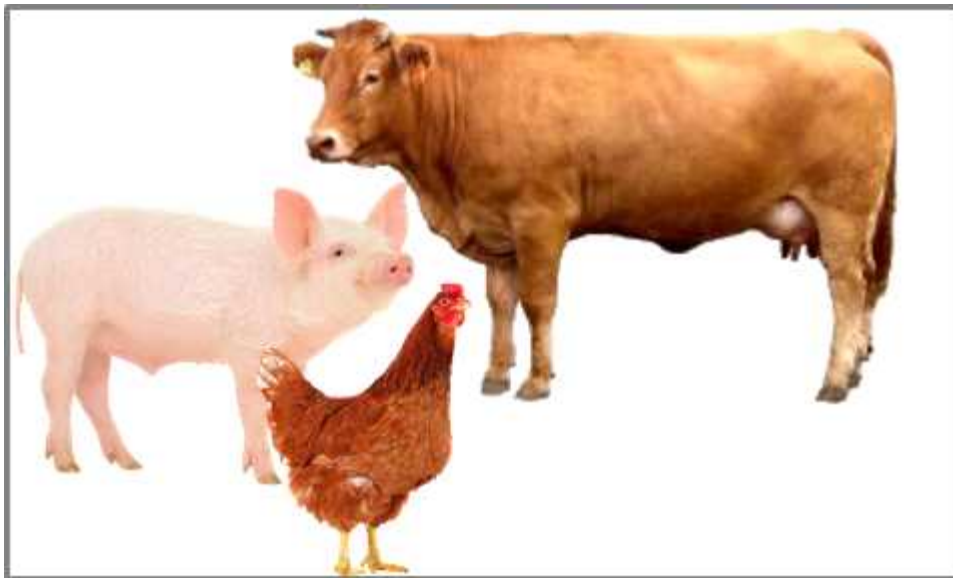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17)	1주일전 (04/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9,000	551,633	↓ 1.9	↓ 5.9
	느타리버섯	2kg	12,400	12,200	11,880	13,700	12,693	↓ 9.5	↓ 2.3
	새송이버섯	2kg	7,400	7,800	8,040	8,250	8,403	↓ 10.3	↓ 11.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31	7,850	7,804	7,737	6,186	↓ 0.1	↑ 25.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2	2,009	2,027	1,813	1,760	↑ 12.1	↑ 15.5
	닭고기	1kg	5,363	5,668	5,687	5,262	5,771	↑ 1.9	↓ 7.1
	계란(특란)	30개	7,651	7,509	7,316	5,355	5,667	↑ 42.9	↑ 35.0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9	2,473	↓ 0.8	↑ 2.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유기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온실가스(메탄) 저감효과

#### □ 개발기술 내용

- 유기 벼 재배에서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재배 환원 시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온실가스 40% 감소
  - 메탄 배출량 : 관행 367 → 부분경운 220kg/ha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벼 부분경운 이앙단지 조성 : 3개소
- 농업부분 저탄소농산물 생산 기술 홍보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벼 저탄소 인증단지 조성
-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 생산비 절감 : 23.6백만원/h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 ■ 전남지역 발작물 잡초 발생현황 및 관리기술

### □ 개발기술 내용

- 발작물 잡초 발생현황 : 총 34과 115종(동계 25과 75종, 하계 30과 82종)
  - 우점잡초 : 바랭이, 독새풀, 한련초, 쇠비름, 참방동사니 등
- 발작물 외래잡초 발생현황 : 총 29종(동계 20종, 하계 19종)
  - 우점잡초 : 망초, 좀명아주, 유럽점나도나물, 개비름, 개쑥갓 등
- 관리기술
  - 재배작물에 따라 파종 전 제초제 살포와 비닐멀칭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잡초 발생상황에 따라 2차적으로 선택성이 있는 제초제를 경엽 처리하거나 골사이에 발생한 잡초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처리해야 함

		
【보리밭】	【마늘밭】	【양파밭】
		
【콩밭】	【고추밭】	【고구마밭】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및 농업인 교육 및 홍보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작물별 수량 손실 방지 : 콩 50.2, 고추 17.2, 양파 40.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권오도, 이 인, 안규남

## ■ 벼 조기재배 시 늦이삭 수량성 및 제어 방법

### □ 개발기술 내용

- 조기재배 시 품종 및 질소시비량에 따른 늦이삭 발생량 및 수량성
  - 품종별 포기당 발생수 및 주율 : 조평벼 3.1개, 90% > 전남1호 2.9개, 79.2%
  - 질소시비량별 발생수 : 9kg/10a, 3.2~3.4개 > 7kg, 2.5~2.7개
  - 늦이삭 수량성 : 조평벼 35kg/10a > 전남1호 26kg
- 늦이삭 발생 제어방법
  - 2,4-D 표준량 1/2량을 유효분얼~유수형성기 사이 처리하거나 액상 규산(17%) 1,000배액을 최고분얼기~수잉기 사이 처리로 각각 32, 28% 감소

품종	질소 시비량 (kg/10a)	출수후 45일		쌀수량 (kg/10a)			
		(개/주)	주율 (%)	정상	늦이삭	전체	감소율
조평벼	7	2.7	92.5	551	35	586	6.5
	9	3.4	87.5	558	35	593	6.4
	평균	3.1	90.0	554	35	589	6.4
전남1호	7	2.5	74.2	565	21	586	3.8
	9	3.2	84.2	566	32	597	5.7
	평균	2.9	79.2	566	26	592	4.8



【품종 및 질소시비량에 따른 늦이삭 발생량 및 수량성】

【늦이삭 발생】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및 조기재배 농업인 교육 및 홍보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늦이삭 발생 억제 및 쌀 수량 증수 효과 : 74,136~89,696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권오도, 이 인, 안규남



## ■ 차 생잎을 첨가한 소스 제조 방법

### □ 개발기술 내용

#### ○ 드레싱 녹차소스 제조 방법

- 찻잎 9, 사과주스 37, 식초 30, 과당 16.5, 정백당 7, 소금 0.5%

#### ○ 유화형 녹차소스 제조 방법

- 찻잎 9, 마요네즈 39, 사과 28, 양파 10.5, 식초 3, 정백당 10, 소금 0.5%
- 증자 : 증기에서 1분 처리, 열수 : 끓는 물 1분 침수 후 냉수냉각 처리



【드레싱 녹차 소스】



【유화형 녹차 소스】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차 가공 판매 업체 교육 및 컨설팅 시 교육자료 활용
- 카페, 찻집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보급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차 생잎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면 생산비를 절감
- 차 생잎 첨가 제품의 녹색이 짙어 상품의 품질을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김영옥



## ■ 2017년산 벼 종자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 일미·신동진 등 10품종 156톤 우량종자 생산·공급 -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일미·영호진미·신동진 등 10품종 32.2ha를 재배하여 156톤의 벼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는 2017년산 벼 우량종자 생산계획을 확정했다.
- 올해 벼 종자생산은 기존의 다수확 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공급방향을 전환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 위주로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종자관리소에서는 금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종자소독과 볍씨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조생종인 운광벼 이앙과 함께 중·만생종 이앙이 완료되면 우렁이 농법을 통해 잡초제거 등 친환경농법을 통해 45톤의 원종을 생산하여 국립종자원에 공급하게 된다.
- 또한, 증식종자 78톤은 정부 보급종 가격의 85% 수준에서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어려움에 있는 농업인에게 종자구입 부담을 줄이고 종자 갱신을 증대를 통해 최고의 품질과 완전미 비율을 높여 쌀 소비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전남도에서는 최근 우리지역 RPC 및 쌀 브랜드 경영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전국 12대 브랜드와 전남 10대 브랜드 품종인 일미벼와 호평벼 종자를 공급하여 질 좋은 고품질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2017년산 벼 종자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 일미·신동진 등 10품종 156톤 우량종자 생산·공급 -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일미·영호진미·신동진 등 10품종 32.2ha를 재배하여 156톤의 벼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는 2017년산 벼 우량종자 생산계획을 확정했다.
- 올해 벼 종자생산은 기존의 다수확 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공급방향을 전환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 위주로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종자관리소에서는 금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종자소독과 볍씨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조생종인 운광벼 이앙과 함께 중·만생종 이앙이 완료되면 우렁이 농법을 통해 잡초제거 등 친환경농법을 통해 45톤의 원종을 생산하여 국립종자원에 공급하게 된다.
- 또한, 증식종자 78톤은 정부 보급종 가격의 85% 수준에서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어려움에 있는 농업인에게 종자구입 부담을 줄이고 종자 갱신을 증대를 통해 최고의 품질과 완전미 비율을 높여 쌀 소비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전남도에서는 최근 우리지역 RPC 및 쌀 브랜드 경영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전국 12대 브랜드와 전남 10대 브랜드 품종인 일미벼와 호평벼 종자를 공급하여 질 좋은 고품질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못자리 1회 관주처리기술 개발로 병해충 『한방에』

- 벼농사 병해충 종합방제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5년부터 2년간의 연구 끝에 육묘중인 모판에 단 한번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벼농사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강진·나주·장흥군 등 200ha 논에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비해 약제 살포시간을 95%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를 포함한 살포비용도 13%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답이 아닌 못자리에서 약제를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1회 처리만으로도 벼농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병해충(물바구미, 벼애잎굴파리, 먹노린재, 이화명충, 흑명나방, 멸구류,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을 대부분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보호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살포장비가 필요 없으며 본답에서 병해충 종합방제 횟수를 1~2회 줄일 수 있다.
- 못자리 관주처리에 적용 가능한 약제는 살충제(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 상품명 미네토스타 80g/10a)와 살균충제(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상품명 뉴샷 180ml)로 6~10ℓ의 물에 희석하여 이앙 2~3일전에 물뿌리개를 이용 육묘상자당 약 250~300ml 정도 살포해야 한다(모상자 20~30개/10a). 다만, 적용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90~100일 정도 이므로 본답 생육기간이 120일 이내인 조기, 이모작재배와 조생종 품종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중만생종인 경우에는 후기 병해충 발생여부에 따라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권오도 작물연구팀장은 “병해충은 쌀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발한 “못자리 1회 관주처리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병해충 방제효과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로서 금년에는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내년부터는 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전 시군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쌀국수용 벼는 일반벼보다 이앙시기가 빨라요

- 일반벼 보다 1주일 빠른 5월 24일 전 이앙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쌀국수용 통일형 벼의 원료곡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이앙시기를 소개했다.
- 쌀국수 가공 전용품종인 『새미면』과 『팔방미』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통일형 벼품종으로 일반 밥쌀용 품종과는 다른 이앙시기에 재배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 통일형 벼는 일반벼와 인도형벼의 중간형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 식량자급의 주역이 됐던 벼 품종이다.
- 쌀국수용 통일형 벼는 일반벼와 달리 4월 24일경 파종해 이앙 시기는 5월 24일 전이 알맞다.
-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는 2015~2016년 새미면과 팔방미의 최대수량을 위한 이앙시기 조사를 경남 밀양에서 실시한 결과, 새미면은 5월 24일에 이앙했을 때 10a당 쌀 수량이 751kg, 팔방미는 5월 17일 이앙했을 때 743kg로 가장 높았으며, 그보다 늦어질 경우 수량이 점점 감소했다.
- 또한 완전미 비율은 새미면은 5월 17~31일 사이에 이앙 시 61.9~64.5%, 팔방미는 5월 17~24일 사이에 이앙 시 58.2~60.5%로 높은 수량을 얻을 수 있는 이앙시기와 비슷했다.
- 농촌진흥청 오명규 논이용작물과장은 “통일형 벼는 빨리 이앙하면 저온에 약해 냉해를 입을 잘 자라지 못하고, 늦게 이앙하면 등숙기에 저온으로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확을 위해 일반벼 보다 1주일 정도 빠른 5월 24일 전에 이앙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시설하우스 토마토 재배 시 해충 예찰 꼼꼼히 하세요

- 봄 기온 높아 월동해충 부화시기 앞당겨질 듯... 초기방제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이른 봄에 정식하는 토마토 반축성 재배 시 시설하우스의 기온이 낮엔 높고 밤엔 낮아 월동해충 발생 증가가 우려되므로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시설재배지 문제 해충 출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생육초기에 해충 밀도를 낮춰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토마토 생육초기의 문제 해충으로는 총채벌레, 굴파리, 담배가루이 등이 있다. 특히, 온실에서 월동이 쉬운 가루이류, 굴파리 등 저온다습 조건을 좋아하는 해충들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 이들 해충들은 현재 알에서 부화하는 유충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육초기부터 적용가능 약제를 뿌려 초기 밀도를 낮춰 준다.
- 해충들은 온실주변 잡초로부터 하우스로 들어오므로 개화 후에는 수정벌에 영향이 없는 방충망을 설치해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총채벌레류 알은 식물체 줄기의 아래 부분 주변이나 멸칭 부위에서 부화해 토마토 잎으로 이동한다. 지금 시기에 시설내부 식물체 줄기 아래 부분과 멸칭이 되지 않은 부위에 약제를 뿌려 초기 밀도를 낮춰주면 수확기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온실 안 총채벌레 수가 늘기 전인 5월 상순까지 천적인 이리응애를 방사하고 발생이 시작됐다면 으뜸애꽃 노린재를 방사한다. 이들 천적들은 작물의 잎에 뿌리거나 종이 봉투에 넣어 작물에 걸어주면 된다.

- 굴파리는 토마토 지제부에 서식해 피해를 줘 끈끈이 트랩으로 잡으면 된다. 또한 줄기 아래 부분이나 배지 부위에 사는 유충은 적용약제를 뿌려 방제하면 초기 밀도를 낮출 수 있다.
- 천적 사용 시엔 천적인 굴파리좀벌 성충을 약제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방사한다. 천적에 의한 방제는 저온기에 활용해 발생초기에 미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방사 직후에는 엽면시비나 약제 살포는 하지 않도록 한다.
- 토마토 담배가루이는 황화잎말림 위조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으로 온실가루이를 포함해 이들 매개충을 생육 초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이들 해충들은 황색유인트랩을 이용해 예찰하고 잎 뒷면까지 약제를 뿌려야 하며 시설하우스 주변의 잡초를 뽑아 서식지를 없애야 한다.
- 담배가루이 천적인 지중해이리응애와 황온좀벌을 660㎡당 각각 1만 마리와 5천 마리로 10일 간격 2회 정도 방사하면 된다. 황온좀벌을 방사하기 전에 담배가루이가 배설하는 감로를 확보하기 위해 천적의 접근을 막는 개미가 많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사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사과 꽃, 빠르면 17일부터 필 듯... 지난해보다 당겨져

- 수정 작업·서리 피해 등 철저한 대비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사과 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경북 의성지역 기준 4~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꽃 피는 시기에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올해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상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후지』 사과의 예상 만개일은 문경이 4월 17~18일, 충주·안동·의성이 4월 19~20일, 영주·거창이 4월 24~25일, 청송·봉화·제천·장수는 4월 26~28일경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 만개기는 같은 지역이라도 사과원의 위치가 기준 해발고 보다 100m 높으면 2일 정도 늦고, 낮으면 2일 정도 빠르다. 또한 같은 해발이라도 햇빛이 잘 드는 남향 경사면은 빠르고, 해발이 낮더라도 야간에 찬 공기가 머무르기 쉬운 분지 지형에서는 늦어진다.
- 사과 꽃의 예상 만개기는 4월 이후의 기상조건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는데, 특히 올해 기상변화가 다소 큰 경향이 있어 고온에 의해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야간 저온에 의해 늦서리 피해도 우려된다.
- 늦서리 피해 상습지에서는 지금부터 기상예보를 항상 청취해 서리 피해를 예방하도록 미세살수 장치, 방상팬 가동 및 연소재료 확보 등의 준비로 대비해야 한다.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한 살수법, 과원에 바람을 일으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 피해를 방지하는 송풍법 등이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지금이 방제적기

- 4월 15일경, 과실크기 10mm, 지역·품종에 따라 차이 있어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매실에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제적기는 4월 15일경으로 과실크기가 직경이 10mm내외이며, 지역·품종·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약제 살포는 최고 기온이 25℃ 이상으로 맑고 화창한 날이 좋다. 방제적기 이후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하며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피해를 받아 떨어진 과실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한다.
- 피해 증상은 초기에 열매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으나 수확 직전에 표면 일부가 갈색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복숭아씨살이좀벌은 2012년 전북 순창에서 첫 발생되어 광양·순천·곡성 등 매실 주산단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 과실 씨방 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여 이듬해 꽃필 무렵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어 어린 열매 속에 1개씩 산란한다. 성충 1마리는 100여개의 알을 낳는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복숭아씨살이좀벌의 방제적기는 품종·지역·기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정밀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기간을 설정해서 마을단위 공동방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인삼 뿌리썩음병 억제하는 녹비작물 찾았다

- 녹비 생산량 많은 수단그라스·아주까리·똥판지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인삼 연작장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뿌리썩음병 억제에 수단그라스·아주까리·똥판지(돼지감자)를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 이중 수단그라스 재배 시에 뿌리썩음병 발병률이 가장 낮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아주까리와 똥판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단그라스는 가장 널리 쓰이는 화본과 작물로 여름철에 잘 자라 녹비 생산량이 많으며, 식물체의 질소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인삼의 염류장해를 줄이는 효과가 높다. 토양에 염류농도가 높아지면 인삼뿌리에 상처가 생겨 병원균이 쉽게 침투한다.
- 아주까리와 똥판지도 재배하기 쉽고 녹비 생산량도 비교적 많은 장점이 있다.
- 기존에 선발된 녹비작물인 해바라기는 녹비 생산량이 많아 여름철에 식물체를 토양에 넣어주고 비닐로 덮어주면 지온이 상승해 태양열 소독에 적합하다.
- 열무·쑥갓·상추·치커리 등과 같은 채소류와 작약·네마장황·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은 식물체의 질소함량이 많은 대신 섬유질이 적어 토양개량 효과도 떨어지고 인삼의 뿌리썩음병 억제에도 효과가 없었다.
- 녹비작물은 가을에 인삼을 수확한 밭에 이듬해 4~5월에 재배한 다음 생육이 가장 왕성한 개화기에 트랙터로 갈아 땅에 넣어주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6. 정책 동향

### ◆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농협전남지역본부 손잡아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2일 농업기술원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홍묵)와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은 농업기술원과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생산비 절감과 6차산업 활성화, 청년창업농 육성, 유망품목 발굴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이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현장애로기술 해결, 품목별 경영체 육성 조직화, 친환경 광역산지조직 육성 시범사업 협력, 신기술 사업 신속보급 및 안정적 판로개척과 컨설팅,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공유,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빅데이터 활용 농업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성과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공동추진 등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김성일 농업기술원장은 “농협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이 건강계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농가의 온라인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DB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좋은 상품을 갖고도 판로가 부족한 농업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으로 농가DB(이하 맞춤형 농가 DB)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 농가 DB는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발굴하여 생산현황, 인증 등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각종 정보를 구축, 대형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사업 상품기획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온라인 쇼핑몰 상품기획자들은 맞춤형 농가 DB 사이트(farmdb.eat.co.kr)에 접속, 상세정보를 열람하여 판매 가능 상품을 발굴할 수 있다.
- 상품기획자들이 판매자 입점 검토 시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각종 생산품목, 판매가능 시기, 생산량, 재배형태 및 주요시설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농산물 인증정보, 온라인 판매경험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컨설팅을 받은 농가 정보에는 상품의 강점 및 차별화 포인트, 품질관리 방법 등의 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그동안 생산 농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노하우 부족, 온라인 사업자는 생산자 정보 부족으로 정보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업 상품 기획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농가DB를 구축하고, 생산농가에게는 온라인몰 입점요령, 마케팅, 상품소개 페이지 작성 등 생산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지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올해가 가입적기

- 농지연금의 1/4분기 가입건수는 작년 동기(512건)대비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그간의 제도개선 등으로 1/4분기 기준 신규가입자는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 담보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80%), 대출이자율 인하(3→2%) 등
-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령농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한편, 3월부터 새로 출시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직 후 10년 동안 일반중신형 상품 보다 약 20%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써,
-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이외에도 일시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하여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원활한 은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2016년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현재 2%)을 동결하여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올해가 가입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 생명 지킴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대

- 전라남도는 농촌지역 자살 발생의 주범인 농약으로부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자살예방협회 주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에 응모한 결과 9개 시군 20개 마을이 선정돼 663가구에 보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농촌 주민들의 주 연령층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해 농약병을 음료수병으로 오인해 음용하거나, 화검에 음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여수·나주·광양·영암, 4개 시군 13개 마을 633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마을에서는 자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전라남도는 4월 중 마을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쳐 5~7월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하고 대표마을 현판식 및 생명지킴이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후에는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현장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 이밖에도 전라남도는 자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중심으로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자살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계획이다.
-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내실화해 자살시도 응급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출처 : 전라남도



## ◆ 함평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갖춰 12일 재개장

- 전남도, 우량 송아지 생산유통 기지 활용위해 현대화 지원 성과 -
- 전라남도는 함평축협 가축시장을 전자경매시스템 등 최신 시설로 신축해 11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12일 첫 개장한다고 밝혔다.
- 함평축협 가축시장은 지난 1903년 개설돼 1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 가축시장이다. 그동안 낙후시설과 주변여건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이 컸다.
- 전라남도는 우수 혈통 한우 송아지 등을 공급,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도내 15개 노후 가축시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곡성·함평·영암 3곳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보성·영광 2곳을 지원한다.
- 함평 학교면에 새로 단장해 이날 준공되는 함평축협 가축시장은 1만 7천648㎡ 부지에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하루 368마리(송아지 224성우 144마리)를 전자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현대화 시설을 갖췄다. 차량 소독시설 강화, 주차 공간 확대(200대), 함평군 거점소독시설 역할도 한다.
- 특히 가축시장 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함평지역 축종별(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염소) 축산단체 사무실을 설치해 모든 축종의 축산인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5월 개장한다

- 농업인들 숙원사업, 건립공사 마무리 한창 -

- 순천시는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서면 구만리에 건립 중인 농산물 가공센터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에 건립될 농산물 가공센터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시설을 이용해 시제품 생산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기술과 창업보육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장환경 분석 및 사전 품목선정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해 9월에 최종결과 보고회를 마쳤으며, 2016년 3월에는 가공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공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했다.
- 가공센터 준공 후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4월중에는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농산물 가공센터는 반찬류, 습·건식류, 빵류 등 18개 유형 78개 품목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다. 반찬류는 김치류, 장류 등 6개 유형 25품목, 습·건식류는 잼류, 선식류, 과자류 등 10개 유형 43품목, 그리고 빵류로는 제빵류, 케익류 등 2개 유형 10품목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 출처 : 순천시

## ■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비상근무 착수

- 4~6월 주말에도 농기계 임대 가능... 사전예약 당부 -

-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사업소)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 사업소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간 평일(08~20시)과 주말(09~18시)에 걸쳐 본점 1개소(동수동)와 분점 4개소(문평·금천·남평·봉황)에 농기계지원팀 22명이 투입돼 비상근무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특히 사업소 본점의 경우 본격 이앙철인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말은 물론, 법정 공휴일에도 적기 이앙을 위한 임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 사업소는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승용 이앙기 임대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어 4월 6일부터 예약 인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및 조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 한편, 사업소는 영농용 굴삭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등 114종 1,00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 7,800건의 임대 사업을 진행해왔다.
-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소(5개소)를 운영하는 나주시는 올해 노안 분소(17년 7월 준공예정)를 시작으로, 서남권 분소 1곳(공산·동강 17년 12월 준공예정)을 증설해 영농철 농가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나주시



## ■ 광양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나선다

- 옥곡·광영·진상·진월에 2020년까지 총 267억원 투입 -

- 광양시는 옥곡·광영·진상·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사업으로 농촌지역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의료·문화·복지 등 세부사업을 접목하고 농촌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20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지원받아 총 267억원을 투입한다.
- 시는 중심지 접근성 향상과 배후마을 활성화 사업 등 지구별 고유의 특성에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거리를 더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프로젝트 매니저(PM)단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 옥곡면에서는 2018년까지 87억을 투입하여 건강문화센터, 광장, 5일시장 주변 상가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영동은 2018년까지 60억을 투입해 축구테마센터와 축구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도 들어선다.
- 진상면은 2019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문화복지센터와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건강목욕장을 증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 진월면은 2020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밤거리조성, 중심 가로경관정비사업이 진행된다.

\* 출처 : 광양시



## ■ 담양군,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추진

- 담양군은 지난 10일 군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우렁이 생산자 단체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다.
- 새끼우렁이는 친환경농업에서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농자재로 군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2억 5,400여만원을 투입, 2,124ha의 면적에 제초용 우렁이 25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군은 올해 친환경답을 대상으로 새끼우렁이를 무상 분양함으로써 일반 답과의 차별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간담회는 새끼우렁이 공급을 앞두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우렁이 규격, 공급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우렁이 생산자 업체는 “제초제의 사용 없이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서 희망하는 우렁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효과가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군 유기농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이 확실한 우렁이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새끼우렁이농법은 전남도에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농법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의 잡초방제효과 및 벼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새끼우렁이는 피, 물달개비 등 일반 제초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잡초까지 99%이상의 제초 효과를 나타낸다.

\* 출처 : 담양군



## ■ 곡성군, 곡성멜론 장미향 나는 5월부터 선 보인다

- 조기재배 시설개선으로 출하시기 앞당기다 -

- 곡성멜론은 총재배 면적이 180ha로 연간 5,4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5~6월 출하(2~3월 정식) 80ha, 7~8월 출하(딸기후작/4~5월 정식) 60ha, 9~11월 출하(6~7월 정식) 40ha가 생산되고 있다.
- 그동안 군에서는 고품질 멜론생산을 위해 멜론의 생육환경에 알맞도록 노후 하우스를 내재해형 신규 하우스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설개선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했다. 특히 멜론 조기재배 시설개선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겨 출하시기가 6월에서 5월로 빨라져 달콤한 곡성멜론을 일찍 맛 볼 수 있게 됐다.
- 또한 시설하우스 벼 윤작 등에 의한 흙살리기 사업은 향이 뛰어난 멜론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곡성의 기후특성과 함께 오늘날 전국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
- 소비자들이 반할만한 맛 좋은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멜론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100여 일 동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멜론을 정식하여 40여 일만에 착과시키고 50~60일 후에 수확하게 되며, 특히 물관리와 온도관리에 의해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출하 시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적정한 기후, 농가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명품 곡성멜론이 5월부터 전국에 소비자에게 선보여지고, 특히 5월 19일부터 10일간 펼쳐지는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곡성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장미향과 함께 멜론의 달콤함이 전해질 예정이다.

\* 출처 : 곡성군

## ■ 고흥군, 친환경농업 실현 위해 연중 무료 토양검정 실시

- 고흥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농업인에게 토양종합검정실을 상시 운영해 토양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토양검정이란 토양의 △산도 △염도 △유기물 △인산 △칼륨 △규산 등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작목별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 토양시료 채취 시기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의 퇴비나 비료를 시용하기 전까지 실시하고, 토양분석 결과를 매년 비교할 목적이라면 매년 같은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좋다.
- 토양 검정을 받으려면 대상농지의 5~7곳에서 지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깊이 15cm에 해당하는 토양 500g 정도를 직접 채취한 후 깨끗한 봉투에 담아 경작지 주소, 재배면적, 작물명 등을 적어 의뢰하면 되고, 의뢰 후 토양분석에서 비료처방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비료사용처방서는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올해는 휴대용 토양현장진단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실험실 내 토양 화학성 검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물 생육장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토양종합검정실(☎ 061-830-6834)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고흥군

## ■ 보성군, 차별화된 지역소득 작물 선정 집중육성

- 단호박·브로콜리 등 5개 품목에 6억원 투입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소득 작물 지원을 위한 농가소득 창출에 발 벗고 나섰다.
  - 단호박·브로콜리·작두콩·적채·무시래기 등 5개 품목을 지역 특화 작물로 선정하고,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종자대 지원비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단호박은 10a당 15만원, 작두콩은 23만원, 브로콜리·적채는 11만원, 무시래기는 10만원의 종자대를 지원한다.
  - 한편, 작목별 재배현황으로는 단호박 288농가 142ha, 브로콜리 61농가 33ha, 작두콩 16농가 10ha, 적채 14농가 8ha, 무시래기 20농가 16ha이다.
- \* 출처 : 보성군





## ■ 해남군, 소득작목으로 잎담배 적극 육성

-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

- 4월부터 잎담배(엽연초) 정식이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잎담배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한다.
- 잎담배는 해남군 관내 황산·산이·문내·화원 등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126농가 11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전량 계약 재배해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 매년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잎담배는 3.3㎡당 소득이 9,000원 가량으로 같은 시기 재배작물인 봄배추 보다 3,000원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는 봄 대체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 해남군은 잎담배의 안정생산 및 판매를 위해 일시 수확이 가능한 황색종으로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관내 60%이상 농가가 황색종을 재배하면서 수확 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올해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위한 멀칭비닐 및 4종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특히 장마철인 6월경 잎담배 수확이 이뤄지면서 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건조장 11동을 건립, 마을별·작목반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엽연초는 전국 3,403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해남군은 전국의 3.3%, 전남의 27%의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8. 해외 농업정보

### ◆ 독일, 식품 유통시장 동향

- 2015년, 독일 식료품시장 매출액 규모는 약 1,480억유로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약 90%(약 1,330억유로)를 차지함. 특히 Edeka Group, Rewe Group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상위 5개 기업이 독일 오프라인 식료품 유통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료품은 비식료품에 비해 오프라인 구매 의존도가 낮음. 2015년 기준, 온라인을 통한 독일 식료품 매출액은 전체 식료품 매출액의 약 11%인 150억유로에 그쳤으며 소비자 구매율도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독일 시장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율이 2015년 1%대에서 향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4월, Amazon은 『Amazon Fresh』라는 브랜드로 독일 식료품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 베를린(Berlin)을 시작으로 뮌헨(Munich)과 함부르크(Hamburg)에 시범적으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임. 뮌헨 지역의 경우 현재 냉동·냉장 저장 창고를 건설 중으로 2017년 여름 이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Rewe Group과 Edeka Group은 이미 독일 내 식료품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Amazon의 온라인 식료품 유통시장 진출에 따라 기존 체인형 슈퍼마켓 운영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를 위한 투자를 준비 중임
- Rewe group은 독일 내 베를린·뮌헨을 비롯한 75개 도시에서 식료품 판매·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deka Group은 베를린과 뮌헨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배송 서비스를 다른 주요 대도시로 확대할 예정임
- 독일 Schwarz Group의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 기업인 Lid사는 식료품 온라인 판매서비스에 1억유로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Amazon의 독일 온라인 식료품 유통업 진출과 함께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독일 식료품 유통 기업도 잇달아 온라인 유통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독일 식료품 유통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식료품 유통시장의 변화에 발 빠른 적응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독일 식료품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제품 보관과 배송을 위한 냉장·냉동 관련 설비 및 장비의 수요 증가 예상됨
- 또한, 독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온라인 결제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페루, 엘니뇨현상으로 농산물 수출 타격

- 페루 엘니뇨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엘니뇨(El Niño)』란 태평양 적도에서 발생하는 해수 및 대기 시스템 변화 현상으로 주로 12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발생함
- 동·서태평양 간 기압 차로 인해 무역풍이 약해지고 태평양 서쪽 지역의 따뜻한 표층수가 태평양 동쪽 남미 연안의 차가운 해수와 만나게 되면서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를 야기함
- 2016년 8~10월 사이 발생한 가뭄이 피우라(Piura), 람바예케(Lam bay eque), 앙카시(Ancash), 이카(Ica) 등 페루의 주요 농업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함
- 가뭄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의 성숙이 가속화되면서 수확시기가 앞당겨짐. 조기 수확된 농산물 대부분이 중량 미달로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침
- 가뭄 직후인 2016년 12월 하순 이래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페루 전국 각지에서 홍수가 발생했음. 약 9,705ha의 농경지가 소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페루 농업통계정보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홍수 피해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로는 카카오·사탕수수·양파·아스파라거스·망고·퀴노아 등이 있음

- 2017년 1~2월, 페루의 농산물 수출 선적량은 2015년과 2016년 동기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음. 사탕수수의 2017년 1~2월 수출규모는 약 32만달러로, 전년 수출규모의 3%에 불과함. 아스파라거스와 망고의 수출 역시 전년대비 각각 37, 44% 감소함
- 2017년 3월 기준, 몇주 내로 또 다른 집중 호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페루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됨
- 이에 향후 농산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의 공급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됨
-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등 농산물 및 기타 원자재의 물량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됨
- 또한, 페루에서 농산물 및 기타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제조업체의 피해가 예상되어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책 확대 필요가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4. 17.(시카고 선물거래소)

### □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상승

#### ○ 밀 선물시장 상황(▼0.8%)

- 밀 선물 가격은 비가 예보되면서 단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5%)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5% 상승 마감하였음. 대두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불확실한 기후도 가격 상승에 지지를 더하였음

#### ○ 대두 선물시장 상황(▲0.8%)

-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2주 이래 최고수준으로 상승 마감하였음. 최근 불확실한 수확 기후가 가격 상승에 지지를 더하였음. 대두박 또한 중국 대두박 선물 시장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대두유는 하락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2017년 벼·콩 보급종 추가로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해 사용할 '16년산 벼·콩 보급종을 4월 10일부터 공급물량 소진 시 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http://www.seednet.go.kr)) 또는 잔량이 있는 지원에 전화로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품종은 벼 7품종 1천여톤(운광 450·동진찰 230·일품 160·조평 73·추청 70·오대 30·삼덕 7톤)과 콩 3품종 350톤(대원 290·태광 30·우람 30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기타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사항이나 품종특성, 재배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 -912-0187)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 seednet.go.kr](http://www.seednet.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27일까지 신청하세요

- 전남도, 신청 못한 농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 -

- 전라남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접수가 오는 28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불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미나리·연근·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 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다음해 3월 지급된다.
-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이는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 접수가 마무리됐다.
- 또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 봄비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

-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 곡우(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곡우의 의미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래서 『곡우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같은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전해진다.
- 곡우가 되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벼씨를 담근다. 한편 벼씨를 담아 두었던 가마니는 술가지로 덮어둔다.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게 하여 악귀를 몰아낸 다음 집 안에 들이고, 집 안에 들어와서도 벼씨를 보지 않게 한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벼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아 그 해 농사를 망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곡우에 먹는 음식으로 서해안 지역에서는 조기 음식을 먹고, 황해도 지역에서는 숭어회나 숭어 찌개를 해 먹는다.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로 곡우물을 먹으러 가는 풍습도 있다. 곡우물은 자작나무나 박달나무 수액으로 거자수라고도 하는데,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3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